



행복해 행복해 정말 행복해

교안작성 : 이주희
대니 파커 글 | 프레야 블랙우드 그림 | 권준성 옮김
키즈덤 | 12,000원 | 저학년

책 소개

키즈덤 그림책 시리즈 1번 책이다.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 수상 작가 프레야 블랙우드의 그림책으로,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의 완벽함을 그린 작품이다. 연필 선을 살린 서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그림과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글이 더욱 돋보인다. “보물”이라는 동요 느낌의 동요가 있는데, 이 그림책의 장면 장면은 마치 그 노래의 가사 “……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라는 가사를 떠올리게 한다.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고, 바닥에 낙서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수선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사방을 뛰어다니다가 나무 그늘에서 소도 만나고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누고 연을 날리고 놀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놀다가 집에 와서는 비오는 창밖을 내다보고 고양이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내 폭신한 침대에서 그대로 잠에 폴아떨어지는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이 펼쳐진다.

활동 목표

1. 동요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음악이 주는 행복한 느낌을 알 수 있다.
2. 책 내용을 통해서 책 속 인물의 이름 등을 상상해서 지어볼 수 있고, 행복감을 공감할 수 있다.
3. 각자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들여다보고, 행복한 느낌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 열기

행복한 동요 따라 부르기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음 〈보물〉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난 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박기 망 까기 말 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 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즈막한 뒷산 언덕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 때 되면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의 단체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의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박기 망 까기 말 타기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즈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 때 되면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박기 망 까기 말 타기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행복해 행복해 정말 행복해》는 연필 선을 살린 따뜻한 색감의 그림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특징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름, 나이, 성격을 상상해 보고 이야기 나눠 보세요.



→ 여자1

→ 여자2

→ 남자

→ 고양이

 《행복해 행복해 정말 행복해》는 종이에서 딸기향이 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책을 읽을 수 있고, 리듬감 있는 짤막한 글 덕분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때 행복해 하는지 책을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1	햇살 아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2	
3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할 수 있어서
4	
5	마음껏 뛰놀 데가 있어서
6	
7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어서
8	
9	연을 따라 힘껏 달릴 수가 있어서
10	
11	밖이 보이는 넓은 창이 있어서
12	
13	따뜻한 담요와 기댈 곳이 있어서
14	
15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어서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들을 고백해 보세요.

나의 행복 고백 글	나의 행복 고백 간단한 그림 또는 만화